

# ‘축구 태극형제’ 따끔한 예방주사 맞았다

## 멕시코 압박에 막혀... 제대로 힘 못쓴 벤투호

선수 6명 코로나 양성 판정  
협회의 통해 1년만에 평가전  
손흥민·황의조 첫골 합작  
후반 3분간 3실점...2-3 패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벤투호가 1년 만에 치른 A매치에서 허술한 후방 빌드업의 아쉬움 속에 멕시코에 역전패를 당했다.  
한국은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황의조(보르도)의 선제골이 터졌지만 후반에 3분 동안 3실점하며 2-3으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멕시코에 최근 3연패를 당하면서 4승 2무 8패로 열세를 이어갔고,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당한 1-2 패배 설욕에도 실패했다.  
멕시코의 강한 압박에 막힌 후방 빌드업의 실패가 자초한 역전패였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를 원톱 스트라이커로 내세우고 좌우 날개에 손흥민(토트넘)과 이재성(휴스턴 키움)을 배치한 3-4-3 전술을 가동했다.  
주세종(서울)과 손준호(전북)가 중원을 담당하고 좌우 윙백에는 이주용(전북)과 김태환(울산)이 나선 가운데 스리백은 권경원(상주), 정우영(알사드), 원두재(울산)가 늘어났다. 골키퍼는 구성윤(대구)이 맡았다.  
벤투호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현지시간 12일 진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 권창훈(프라이부르크), 이동준(부산), 조현우(울산), 황인범(루빈 카진)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4일 재검사 결과 김문환(부산)과 나상호(성남)까지 무려 6명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멕시코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대표팀은 상대 팀인 멕시코와 개최국인 오스트리아축구협회와 협의 끝에 경기를 속행하기로 했고, 19명의 선수로 평가전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1월 브라질과 평가전 이후 1년 만에 A매치에 나선 벤투호는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 11위 멕시코를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시도했지만 멕시코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전반 2분 만에 골키퍼의 패스가 잘려 슈팅을 허용하더니 전반 15분에도 빌드업 과정에서 시도한 백패스가 멕시코의 오른쪽 날개 헤수스 코로나에게 연결됐고, 골키퍼 구성윤의 슈퍼세이브로 위기를 넘겼다.  
탈압박에 어려움을 겪던 벤투호는 전반 21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주인공은 ‘캡틴’ 손흥민의 크로스를 받아 ‘원샷원킬’에 성공한 황의조였다.  
이주용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지역 왼쪽 측면으로 쇄도하며 원발로 크로스를 올렸고, 황의조가 오른쪽 눈스톱 슈팅으로 멕시코의 골망을 흔들었다. 황의조의 A매치 11호골이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한국은 후반 15분 손흥민의 후방 패스를 받은 황의조의 원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결국 전반전부터 제대로 풀리지 않은 빌드업에 발목이 잡히며 내리 실점했다.  
후반 22분 우리진영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벤투호가 1년 만에 치른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에서 허술한 후방 빌드업의 아쉬움 속에 멕시코에 역전패를 당했다. 손흥민이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원의 패스가 막히면서 크로스를 허용한 벤투호는 헤미니스에게 헤딩으로 동점골을 얻어맞았고, 2분 뒤에도 수비수의 전진 패스가 차단되며 우리엘 안투나에게 역전 결승골을 내줬다.  
한국은 후반 25분 프리킥 상황에서 멕시코의

카를로스 살세도에게 췌기골을 내주는 등 3분 만에 3골을 허용해 순식간에 승리를 날렸다.  
한국은 후반 28분 손준호 대신 이강인(발렌시아)을 투입하며 전술 변화를 시도했고, 후반 42분 이강인의 오른쪽 코너킥 상황에서 권경원의 추격골이 터졌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 이덕희·한나래 남녀 단식 우승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이덕희 한나래

이덕희(서울시청)와 한나래(인천시청)가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 남녀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덕희는 15일 충남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임용규(당진시청)를 2-0(6-1 6-3)으로 제압했다.  
이달 초 실업연맹전 2차 대회 단식에서 정상에 오른 이덕희는 11월에만 두 차례 국내 대회 우승컵을 품어안았다.  
이덕희는 지난해 8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본선 사상 최초로 청각 장애 선수 승리 기록을 남긴 선수다. 그는 청각 장애 3급이다.  
임용규는 이번 대회 단식과 남자 복식, 혼합 복식 3개 종목에서 모두 준우승했다.  
앞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한나래가 김나리(수원시청)를 2-0(6-3 6-3)으로 물리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나래는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전한국선수권 단식 패권을 탈환했다.  
이 대회 남녀 단식 우승자에게는 훈련 연구비를 500만원씩 지급한다. /연합뉴스

## 브라질 골망 흔들며...매운 맛 보여준 김학범호

내년 도쿄올림픽 대비 평가전  
주장 이동경 전반 7분 선제골  
U-23대표, 브라질 상대 첫 득점  
후반 집중력 떨어지며 1-3 패

이동경(23·울산 현대)이 한국 남자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 사상 최초로 브라질 U-23 대표팀의 골문을 열었다.  
이동경은 지난 14일 이집트 카이로의 알살람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친선대회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출전한 그는 전반 7분 오세훈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예리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대표팀은 비록 이후 세 골을 몰아친 브라질에 1-3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동경의 골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한국 U-23 대표팀이 브라질 U-23 대표팀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축구 우승을 차지한 ‘강호’ 브라질은 늘 어려운 상대였다.  
앞서 2012 런던 올림픽 준결승과 2014년 통통컵, 2014년 21세 이하(U-21) 중국 4개국 친선

대회에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으나 한국 대표팀은 세 경기에서 모두 득점을 올리지 못한 채 패배를 맛봤다.  
브라질이 호드리구(레알 마드리드), 마테우스 쿠냐(헤르타 베를린), 헤이니에르(도르트문트)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앞세워 친선대회에 나서면서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동경이 이른 시간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한국도 ‘매운맛’을 보여줬다.  
이날 풀타임을 소화한 이동경은 득점 이후에도 그라운드를 활발히 누비면서 기회를 노렸다. 전반 44분에는 날카로운 코너킥을 연결했고 후반 12분에는 상대 수비에 막혔지만 적극적인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동경은 올해 1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대회 우승과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에 힘을 보탠 김학범호 주축 선수다.  
U-23 대표팀에서는 11경기에 출전해 9득점을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A대표팀으로 ‘월반’ 해 존 재감을 입증한 바 있다.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아 A대표팀에 합류했던 이동경은 올림픽대표팀과 두 차례 친선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어 승리에 앞장섰다. 이날 브라질전에서도 U-23 대표팀의 패배는 뼈아팠지만, 이동경의 득점이 아쉬움을 달랠다. /연합뉴스



14일 이집트 카이로의 알살람 스타디움에서 열린 U-23 친선대회 브라질과의 2차전에서 전반 7분 이동경(울산)이 선제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날두 침묵’ 포르투갈 꺾고 프랑스, 네이션스리그 4강에

은골로 칸테(첼시)의 결승골을 앞세운 프랑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침묵한 ‘디펜딩 챔피언’ 포르투갈을 따돌리고 2020-2021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 4강에 선착했다.  
프랑스는 15일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다 루스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0-2021 UEFA 네이션스리그 리그A 조별리그 3조 5차전에서 1-0으로 이겼다.  
후반 8분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아드리앙 라비오(유벤투스)가 때린 원발슛이 골키퍼 선방에 막혀 튀어나오자 칸테가 쇄도하며 골대 앞에서 원발로 결승골을 꽂아 승리를 만끽했다.  
4승1무(승점 13)를 기록한 프랑스는 포르투갈(3승1무1패·승점 10)을 따돌리고 선두로 뛰어오르면서 남은 1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파이널(준결승 및 결승) 무대에 가장 먼저 진출했다.  
네이션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두 팀의 승점이 같으면 상대 전적을 먼저 따진다.  
4조에서는 ‘전차군단’ 독일(승점 9)이 우크라이나(승점 6)와 조별리그 5차전 홈 경기에서 3-1 승리를 거두면서 조 1위로 올라섰다.  
독일은 라이프치히의 레드불 아래나로 우크라이나를 불러들여 전반 23분 리오이 자네(빈첸)의 선제골에 이어 티모 베르너(첼시)가 전반 33분 헤딩 결승골, 후반 19분 췌기골을 책임지며 승리를 따냈다.  
반면 4차전까지 4조 선두였던 스페인(승점 8)은 최하위 스위스(승점 3)와 1-1로 비기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도굴
2관	도굴
3관	도굴
4관	내가 죽던 날, 예비규환
5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6관	삼진그룹 영어토박반
9관	내가 죽던 날
7관 씨네카를	내가 죽던 날, 예비규환, 담보 미스터트롯: 더 무비
8관 씨네카를	킹덤 오브 헤븐: 디렉트먼트

문화산책

Relation connection: 나수빈 개인전  
2020. 11.5(목) ~ 11.29(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GAC기획공연 FOCUS  
연극 청문람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20. 11.18(수) ~ 19(목)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광주시립오페라단 제6회 정기공연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2020. 11.30(월) ~ 12.1(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